

GWANGJU FC







2016 SQUAD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효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4 DF 웰링톤 1990.02.21 194cm/80kg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도뜸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0 FW 파비오 1986.10.04 171cm/66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운 1994.04.03 175cm/70kg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 / 68kg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28 MF 김의신 1992.11.26 181cm/70kg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 / 80kg	<div>광주FC SNS 채널</div> <div> @GWANGJU_FC</div> <div> www.facebook.com/gwangjufc</div>		



2016시즌 홈경기 일정

NEXT

4월 9일(토) 14:00  vs 울산 현대	4월 13일(토) 14:00  vs FC서울	4월 24일(일) 14:00  vs 수원 삼성	5월 5일(목) 16:00  vs 상주 상무
--	--	---	--

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www.gwangjufc.com

MARCH 2016 No.1



PREVIEW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광주FC

MANAGER

클래식 잔류 이상의 목표를 노린다!

NEWCOMERS

2016년 돌풍을 이끄는 능력자들

GWANGJU FC STAR

광주FC 캡틴 이종민

광주FC 홈 개막전

vs 제주유나이티드

3월 19일
16:00
광주월드컵경기장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KSPOT 이 책자는 체육진흥추진위원회 주의를 저원사업으로
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 광주FC

지난해 승격팀 최초로 K리그 클래식 잔류를 이룬 광주FC가 2016년에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처럼 클래식 잔류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6위권 진입으로 스플릿 라운드 그룹A에 진출하는 것이다.

12개 팀이 참가하는 K리그 클래식은 팀 당 33경기를 치른 뒤 1위부터 6위까지는 그룹A, 7위부터 12위까지는 그룹B로 편성돼 5경기를 더 치른다. 이 5경기가 스플릿 라운드다. 그룹A는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고 싸운다. 그룹B는 반대로 K리그 챌린지 강등을 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광주FC는 지난해 10승 12무 16패 승점 42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11위까지 강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FC의 순위만 놓고 보면 간신히 강등을 면한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위였던 부산 아이파크가 승점 26점이었다. 그리고 9위였던 전남 드래곤즈는 승점 49점이었다. 광주FC는 탄탄한 경기력으로 일찌감치 강등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순위를 노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난해는 K리그 클래식에서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본격적인 행보는 올해부터다.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전력을 앞세워 6위권 진입을 목표로 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겨우내 전력 보강을 충실히 했다. 김호남이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

적했지만, FC서울에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정조국을 데려왔다. 최전방에 노련하고 능력 있는 공격수가 서게 된 만큼 더욱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게 됐다. 특히 정조국은 주장 이종민과 국가대표팀, 서울에서 함께 뛰었다. 서로 잘 아는 만큼 콤비 플레이를 기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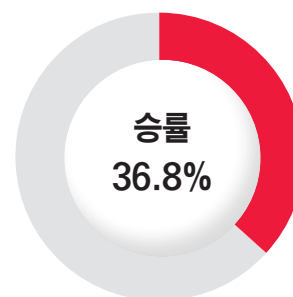
여기에 미드필드를 장악하는 이찬동이 더욱 기량을 업그레이드했다. 현대축구에서는 미드필드 싸움을 이겨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찬동이 중심이 될 미드필드 플레이도 기대가 된다. 지난해 최전방을 책임졌던 파비오, 새롭게 광주FC의 수비를 책임질 웰링턴까지 두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활약도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광주FC는 오는 3월 19일(토) 오후 4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와 올 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제주를 만만치 않은 상대다. 조직력이 뛰어난 축구를 펼치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을 놓치면 승기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즌 첫 홈경기이기 때문에 올 시즌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지난해도 초반 3경기에서 2승 1무라는 호성적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가 시즌 말미까지 이어졌다. 광주의 올해 첫 홈경기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런 만큼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광주FC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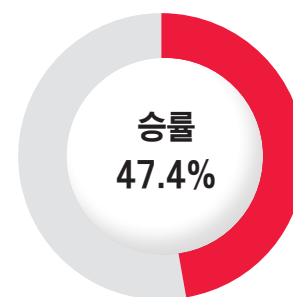
광주FC 2015 SEASON RECORDS

2015년 광주 홈경기 전적



4승 6무 9패 15득점 22실점

2015년 광주 원정경기 전적



6승 6무 7패 20득점 22실점

2015 K LEAGUE CLASSIC

38 경기

승 10
무 12
패 16

35 득점

44 실점

3 최다연승
05.30~06.07

5 최대무패
05.30~06.20 (3승 2무)
07.05~08.12 (1승 4무)

3 최다득점
03.21 vs 부산
05.03 vs 전남

5 연속득점
09.19~10.17

2015년 광주FC 시즌 기록

	득 점	도 움	실 점	슈 텅	코너킥	파 울	경 고	퇴 장
광주FC	0.92	0.58	1.16	8.32	4.16	13.47	1.84	총 0회
클래식 평균	1.20	0.74	1.20	10.46	4.31	13.60	1.87	총 9회



도움

1	송승민, 이요뜸, 이종민	4
2	여름, 조용태	2
3	김호남, 박선홍, 이찬동, 임선영, 주현우, 파비오	1

출전

1	파비오	37
2	송승민, 안영규, 이종민	33
3	여름	31

유효슈팅

1	김호남	26
2	송승민	24
3	파비오	17

득점

1	김호남	8
2	이종민	5
3	임선영	4

경고

1	이찬동	10
2	정준연	7
3	김영빈, 안영규, 여름, 이종민	6



클래식 잔류 이상의 목표를 노린다!

남기일 감독

날이 갈수록 감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전술과 전략이 다양화된 현대 축구에서 감독은 상상 이상으로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물론 경기 중에만 감독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선수단과 신뢰를 쌓고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제자들을 이끄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감독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요소다. 11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제대로 된 수장이 없다면 그 팀은 강팀으로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명장의 존재는 11명의 스타 플레이어 부럽지 않다. 확고한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팀에 뚜렷한 색을 입히면 그 팀은 무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것이 수비적인 색채든, 공격적인 색채든 크게 상관없다. 견고한 틀이 마련되면 어떤 상대도 그 팀을 쉬이 볼 수 없다. 감독의 존재가 중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FC는 복 받은 팀이다. 남기일이라는, 확실한 색을 지닌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K리그 챌린지 강등 1순위로 손꼽혔으나 K리그 최초의 승격팀 잔류라는 역사를 쓰며 광주FC를 클래식 무대에 안착시켰다.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설 새 없이 공격 작업을 펼쳐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라는 찬사까지 불러일으켰다.

이에 남기일 감독은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도 또한 광주를 강등 후보로 봤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에 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보통은 수비를 하면서 역습을 하는 축구를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부터 도전하는 팀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 것 같

다.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상대들을 압도하는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남기일 감독은 직접 나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과의 벽을 허물고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팀을 하나의 끈끈한 유기체로 만들어 나갔다. 새로운 선수들이 대거 들어와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는 "선수들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한다. 동계훈련 기간에 미팅 시간을 많이 가졌다. 아침부터 선수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시작했고 훈련이 끝나는 시간까지 대화를 주고 받는다.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말은 식상하다. 광주는 가족"이라며 웃어 보였다.

지난해 남기일 감독의 광주FC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팬들의 뇌리 속에 오래도록 남을 발자취를 남기는데 성공했다. 이미 남기일 감독은 K리그 팬들 사이에서 '차세대 젊은 명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남기일 감독은 여기서 멈춤 생각이 없다. 올 시즌 더 큰 도전을 바라보고 있다. 스쿼드의 절반 이상이 바뀐 터라 녹록하지 않겠지만, 남기일 감독이기에 또한 기대가 되고 있다.

남기일 감독은 "시민구단의 특성상 스쿼드 이탈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미리 변화를 예상하고 팀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선수들과 신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광주의 색채를 받아들이는 습득력이 매우 좋고 개인이 아닌 팀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자세도 인상적이다"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선수들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다. 전지 훈련 성과도 확실히 만족스러웠다. 70%까지 완성도가 올라온 것 같다.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은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2강 체제가 될 것이라 예상이 지배적이다. 광주FC를 비롯한 대부분의 팀들은 평준화 속에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전북과 서울이 잘 달려주길 바란다. 치고 나갈 팀은 치고 나가야 한다. 평준화 흐름도 재미있겠지만 확실하게 엇갈려 순위 싸움을 치르는 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흥미로울 것 같다. 그러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축구다"며 시즌 판도를 내다봤다.

광주FC는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이후 제주-수원FC-울산-서울로 이어지는 초반 일정이 만만치 않다. 지난 시즌 초반 재미를 토했던 광주 입장에서는 기회 혹은 위기가 될 수 있는 대진이다. 하지만 남기일 감독은 "팀을 맡고 나서 매해가 위기였다. 편안한 날은 없고 편한 경기도 없다. 모든 팀들이 어려운 상대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만들어가야 한다"며 상대와 상관없이 광주의 경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끝으로 남기일 감독은 "지난 시즌 잔류를 했다면 올 시즌은 K리그 클래식에 안착하는 것이 목표다. 팬들로부터 광주는 좋은 방향, 안정적인 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새 시즌 일찍 팀이 안정화된다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지난 시즌은 꾸준함은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동계훈련에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 팬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다면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시즌 광주FC의 활약을 예고했다.

2016년 광주FC의 돌풍을 이끌 능력자들

2016년 K리그 클래식 잔류를 넘어 6강 진출을 노리는 광주FC.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한층 전력을 강화하며 시즌 준비를 마쳤다. 올 시즌 공격, 수비에서 광주FC의 힘이 될 영입 선수들을 소개한다.



정조국 No.9 FW

1984.04.23 186cm/78kg

K리그 통산 275경기 84득점 23도움

광주가 처음으로 영입한 스타 공격수다. 각급 청소년 대표팀을 거쳤고 국가대표팀에서도 간판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했다. 정교한 슈팅 능력과 뛰어난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패트리엇'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조국이 기록한 84골은 현역선수 가운데 통산 4번째로 많은 골이다.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프랑스 리그1 AJ 오세르, AS 낭시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조성준 No.11 MF

1990.11.27 176cm/67kg

K리그 통산 36경기 2득점 3도움

2013년 FC안양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를 밟은 조성준은 데뷔 첫해 24경기에 출전해 4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기량으로 주목 받았다. 스피드를 주무기로 개인기와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고, 침투능력 또한 탁월하다. 수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윈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김진환 No.14 DF

1989.03.01 186cm/78kg

K리그 통산 20경기 3득점 0도움

2011년 드래프트를 통해 강원 FC에 입단한 김진환은 다부진 몸에 빠른 스피드를 지녔으며, 수비 리딩 능력이 뛰어나다. 중앙 수비와 수비형 미드필더 두 포지션 모두 소화할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3골을 기록, 수트라이커라는(수비수+스트라이커)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민혁 No.23 MF

1992.08.16 183cm/71kg

K리그 통산 6경기 0득점 0도움

지난해 FC서울에 입단한 김민혁은 2009년 고교 아시아 학생 대표, 2014년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최우수선수 등을 하며 이름을 알린 유망주다. 위협적인 드리블, 예리한 패스, 높은 골 결정력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신인임에도 활동량이 많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FC에서는 2선 공격수로 최전방과 측면 공격의 활로를 만드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클래식 잔류 넘어 6강 도전!” 광주FC 캡틴 이종민

이종민은 광주FC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수비진의 핵심 자원일 뿐만 아니라 주장 완장을 찬 '큰 형님'으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14년 광주FC에 입단한 그는 지난 두 시즌 동안 팀이 클래식 승격에 이어 곧바로 잔류 신화를 쓰는데 있어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바쁘게 달려온 지난 2년이었지만 올 시즌도 이종민은 숨 들릴 틈이 없다.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주축 멤버로 활약했던 김호남, 임선영, 안영규, 정준영, 제중현 등이 이적과 군문제로 팀을 떠났다. 남기일 감독과 함께 주장으로서 흔들릴 수 있는 팀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종민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빈자리들이 아쉬울 만도 한데 이종민에게서 아쉬운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 밑바탕에는 코

칭스태프와 동료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겨우내 흘린 한 바가지의 땀이 깔려있었다. 그러기에 "작년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는 포부가 괜한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

지난 시즌은 광주와 함께 밟은 첫 클래식 무대였다. 되돌아본다면?

첫 해 클래식에서 우리 팀 나름대로 선전한 것 같다. 초반의 돌풍이라는 말도 많이 있었다. 끝까지 이어가지 못해 아쉽지만 첫 시즌 시작할 때 목표로 뒀던 잔류를 하게 됐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지난 시즌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의 기여도도 눈에 띄었다. 남기일 감독의 주문이 따로 있었나?

우리 팀 전술상 측면 수비수가 공격 가담을 많이 해야 한다. 나도 공격적인 면이 있는데, 감독님도 공격적인 부분을 주문하셨다. 수비도 중요하지만 동료들을 믿고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었다. 그게 맞아떨어져 포인트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올 시즌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새 시즌 선수단의 변화가 크다.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팀을 하루 빨리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빨리 호흡을 맞추려고 동계 훈련기간에 최선을 다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왔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기일 감독은 선수단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주장으로서 감독과의 대화가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감독님은 선수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내가 중간에서 선수들 의견도 많이 듣고 감독님에게 전달한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감독님도 선수들을 많이 배려해주시다.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선수들도 힘을 많이 받는다.

서울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정조국이 합류했다. 경험이 풍부하고 한 방이 있는 선수와 기대가 큰데?

작년에 실점은 적었으나 득점을 많이 못했다. 득점 부분에서 조국이 오면서 좋아졌다. 동계 훈련에서도 조국이 골을 제일 많이 넣었다. 개막 후 빠른 시간 안에 조국의 득점포로 팀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또한 여타 공격수들에게도 조국의 존재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격수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 조국의 모습에 자극을 받고 있다.

광양, 태국, 일본으로 이어진 전지훈련은 어땠나?

만족한다. 선수들이 많이 바뀌면 전술이나 팀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번 두 달간의 전지훈련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팀을 더 빠르게 가다듬을 수 있었다.

팀 완성도는 현재 몇 %까지 올라왔나?

70%다. 개막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세부적인 세트피스, 전술을 다듬으면 첫 경기에서는 80~90%가 될 수 있다.

올 시즌 목표는?

잔류가 목표다. 시민구단이고 모두 알다시피 다른 팀들보다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잔류를 빨리 확정하고 6강에 도전하겠다.

마지막으로 광주FC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계훈련 기간에 많은 땀을 흘렸다.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많은 걸 찾기 위해 노력했다. 더 멋지고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 운동장을 찾아주시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광주 캡틴

이종민의 모든 것

연도별 K리그 기록

2002 수원	경기 득점 도움	0 0 0
2003 수원	경기 득점 도움	16 0 2
2004 수원	경기 득점 도움	5 0 0
2005 울산	경기 득점 도움	35 5 3
2006 울산	경기 득점 도움	24 2 4
2007 울산	경기 득점 도움	33 2 4
2008 서울	경기 득점 도움	15 0 1
2009 서울	경기 득점 도움	10 0 0
2010 서울	경기 득점 도움	6 0 1
2011 상주	경기 득점 도움	23 0 1
2012 상주/서울	경기 득점 도움	18 0 0
2013 수원	경기 득점 도움	7 1 0
2014 광주	경기 득점 도움	30 3 6
2015 광주	경기 득점 도움	33 5 4

*2005년 이후 최고의 시즌!



17
LEE JONG MIN
이종민

2015년 시즌 기록

경기	33	경고	6
득점	5	퇴장	0
도움	4		
파울	41		
피파울	48		
슈팅	24		
유효슈팅	14		



생년월일	1983.09.01
신장/체중	175cm/68kg
포지션	측면 수비수 겸 측면 미드필더
출신교	서귀포중-서귀포고
클럽경력	수원(2002~2004), 울산(2005~2008), 서울(2008~2010), 상주(2011~2012), 서울(2012), 수원(2013), 광주(2014~현재)
대표경력	2003 U-23 월드컵, 2006 아시안게임, 2008 동아시아컵